

“이웃과 더불어 즐기는 시민축제로”

대구봉축위, 19일부터 다채로운 봉축행사 마련

부처님오신날 대구봉축위원회(위원장 허운)가 지역민과 함께 봉축의 의미를 되새겨볼 다양한 행사를 마련했다.

대구봉축위는 “불교의 전통문화를 새롭게 꾸며 봉축행사를 지역민과 함께하는 시민축제로 승화시키겠다”며 “특히 올해는 불교의 미래인 어린이·청소년들이 어울릴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전통등과 장엄등을 시민들에게 보급하는 한편 청소년 댄스경연대회와 어린이 재롱잔치를 개최해 봉축 분위기를 고조시킨다는 방침이다.

올해 봉축행사는 4월 19일 오후 4시 국제보상공원에서 열리는 봉축탑

점등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펼쳐진다. 부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경축하기 위한 봉축탑 점등식에는 2000여 명이 참석한다. 앞서 16일 오후 2시에는 대구문화예술회관에서 제9회 불교합창제가 개최돼 대구 경북지역 불교합창단들이 실력을 겨룬다.

아려운 이웃을 위한 자비의 손길도 이어진다. 어르신 경로잔치는 4월 24일(안일사)과 26일(맑고향기롭게), 30일(대구광역시도회), 5월 2일(원만사)에 각각 개최된다. 독거어르신과 시각장애인의 사찰 참배를 지원하는 ‘아름다운 동행’은 4월 25일 대광명인불자회의 주관으로 펼쳐진다. 이

밖에 ‘자유와 평화공존을 위한 마음오로의 여행’은 4월 20일, 청소년 댄스경연대회와 어린이 재롱잔치는 5월 3일 오후 1시 반월당에서 열린다. 봉축행사의 하이라이트인 연등축제는 5월 3일 오전 10시 반월당 중앙무대와 중앙로에서 열린다. 5만여 명 이상의 대구시민들이 불교체험행사, 율동공연, 장엄등 전시회 등의 식전공연에 참석한 후 제등행진을 펼친다. 제등행진은 반월당을 출발해 계산오거리, 중앙네거리, 봉산옥거리를 거쳐 다시 반월당으로 돌아오는 3.2km 구간에서 진행 된다.(053)623-6388

손범천 대구지사장

•행사일정

행사명	일시	장소
봉축탑등경연대회	5월 3일	봉축위원회
부처님오신날 봉축탑 점등식	4월 19일 오후 4시	국제보상공원
부처님오신날 연등축제	5월 3일 오전 10시	중앙로
선덕여왕 송모제	4월 20일 오전 10시	부인사
제9회 불교합창제	4월 16일 오후 2시	대구문화예술회관
자유와 평화공존을 위한 마음오로의 여행	4월 20일 오전 10시	국제보상공원
동구청 점등식	4월 23일 오후 7시	동구청
아름다운 동행 (독거노인·시각장애인 사찰순례)	4월 25일 오후 7시	대광명인불자회
시정점등식	4월 29일 오후 7시	시정 앞분수대
사구정/사부경철서 점등식	5월 1일 오후 7시	경철서 앞분수대
청소년댄스경연대회	5월 3일 오후 1시	반월당
봉축잔치	5월 11일	대성사
자비광명기원터 점등식	5월 12일	경상감영공원
봉축대법회	5월 12일	각 사찰
남구 어린이 경로행사	4월 24일	동화사
홀로 어르신 저녁공양	4월 25일	맑고향기롭게법당
경로잔치	4월 30일	자비의집
경로잔치	5월 2일 오전 11시	원만사



4월 5일 서울 전국비구니회관에서 첫선을 보인 사리순례전이 전국 순회전시회에 나섰다.

불교 성자 사리 한국 나들이

‘미륵불상 심장전 사리 세계 순례’ 두번째 방한展

부처님의 10대 제자와 티베트 불교 성자들의 사리 3000여 과(顆)가 한국 불자들을 찾아왔다. 2006년에 이어 두 번째 방한 전시로, 공식 행사 명칭은 ‘미륵불상 심장전(心藏殿) 사리 세계 순례전’이다.

이번 전시에서는 성철 스님의 정골 사리도 함께 선보인다. 4월 5-13일 서울 전국비구니회관 법당에서 첫선을 보인 순례전은 부산 대구 전남에 이어 다시 서울에서 열린다.(www.maitreya-project.or.kr 대표표준)

순례전은 티베트 불교 지도자 라마 조파 린포체의 서원을 따라 2001년 3월 시작돼 지금까지 전 세계 250여 곳에서 봉행됐다. 사찰에서 뿐만 아니라 박물관과 병원, 교도소, 호텔을 비롯해 가톨릭 성당 등 장소를 불문하고 법석이 펼쳐졌다. 순례전을 통해 마련되는 수익금은 인도 쿠시나가르에 높이 152m 거대 미륵상을 조성하는데 쓰인다.

미륵상은 자비와 상생의 가르침을 전하기 위해 조성되는 것으로, 현재 인도 정부와 티베트가 교섭을 진행해 현재 불사가 40% 가량 진척된 상태다. 일곱 차크라의 상징을 따라 미륵상의 심장 부분에 순례를 마친 3000여 과의 사리가 안치될 예정이다.

국내 순례전 양시전(법명 법하) 단장은 “사리 친견 순례전에는 세상에 자비를 구현하고자 하는 목적이 담겨있다”며 “참된 인간이 살아가기 힘든 시대에 이번 행사를 통해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순수성을 되찾기 바란다”고 말했다.(02)2088-2706

가연숙 기자

일정	장소
4월 18-23일	부산 반야원
4월 29일-5월 4일	대구 시민회관
5월 9-18일	전남 보성 대원사
5월 23-25일	서울 상원사

봉은사 ‘2008 공개특강’

서울 봉은사(주지 명진)가 역사 문화 등 사회 제반 문제에 대한 해법을 모색해보는 전문가 초청강연 ‘2008 공개특강’을 마련한다.

첫 번째 순서인 4월 25일 오후 7

시에는 1962년 당시 승려로 중수 공사 감독관이었던 목수 신영훈씨가 ‘우리 문화의 소중함’을 주제로 강의한다. 강의는 보우당에서 진행되며 참가비용 없이 누구나 참석 가능하다.(02)3218-4810

여수령 기자

종교 벽 넘어 ‘법회의 새 장’ 연다

보명사 ‘53선지식 법회’ 기독교인 한동철 교수 법석 마련

법회에서는 스님만 법문을 한다? 천안 보명사주지 성문이 펼치는 ‘53 선지식 법회’에서는 현대인들을 위한 새로운 개념의 법석을 만날 수 있다.

4월 6일 열린 ‘53 선지식 법회’ 24번째 법석에는 국내 ‘부자학 박사’ 1호인 한동철 교수(서울여대, 부자학연구회회장)가 법사로 나섰다. ‘부자 되는 법’이란 주제도 파격적이지만, 한 교수 자신은 “중학교 수학여행 이후 법당에 들어온 것이 두 번째”일 정도로篤실한 기독교인이다. 한 교수는 이날 “이 세상에 영원히 존재하는 것은 없기 때문에 어떤 것이든 집착하지 말아야 한다”며 “재산은 신(神)의 소유물이니 남에게 먼저 그리고 이유 없이 빼돌고 살아야 부자가 될 수 있다”는 ‘부자학 개론’을 설파했다.

독실한 기독교인인 한 교수가 법회에 설 수 있었던 것은 법회를 기획한 성문 스님의 지론 덕분이



4월 6일 열린 보명사 53 선지식 법회에서 ‘부자학 박사’ 한동철 교수가 법사로 나서 ‘부자되는 법’을 주제로 강의했다.

다. 성문 스님은 “우연히 한 교수의 강의를 듣고, 부자가 되기 위한 방법이 부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 것을 느꼈다”며 “종교적 색채를 고집하지 않고 어떤 분야에서 그 분야에서 뛰어난 사람을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 한 교수를 초청하게 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4월부터 매월 첫째, 셋째 주 일요일에 봉행되는 ‘53 선

지식 법회’에는 스님 뿐 아니라 각 분야에서 일가를 이룬 저명인사들이 연사로 초청된다. 그동안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을 시작으로 소설가 한승원, 삼성증권 우승택 지점장, 코미디언 백남봉, 사진작가 김중만씨 등이 강단에 섰다. 성문 스님은 “승속을 막론하고 자기분야에서 일가를 이룬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 시대의 참

된 스승이고 선지식”이라며 “선재종자의 구도정신을 현대에 맞게 재해해 우리 사회 각 분야의 선지식들에게 삶의 지혜를 알도록 법회를 마련했다”고 법회 취지를 밝혔다.

지역 불자들에게 새로운 법회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는 선지식 법회에는 앞으로 정신과 의사 이시형 박사(4월 20일), 중앙승가대학교 총장 종범 스님(5월 4일), 프롤로그 한명현 선수(5월 18일), 원광디지털대학교 얼굴경영학과 주선희 교수(6월 1일), 한국일보 방민준 논설위원(6월 15일) 등이 법사로 나서게 된다.

지난 1년여 간 법회를 이끌어온 성문 스님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강의를 들을 수 있는 덕분에 사부대중의 참여가 날이 갈수록 늘고 있다”며 “53 선지식의 높은 식견과 경륜, 진솔한 삶의 지혜와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기회이므로 많은 사람들이 참석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법회는 누구나 무료로 참석 가능하다.(041)522-3362

손효선 기자

조계종 안양불교문화원 · 안양불교대학 신축불사 안내



중생 고통 보듬는 지장도량
엘리트 불자 육성 교육도량
이웃의 행복위한 행복도량

□ 건축 개요

- ▷ 대지위치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512-410, 11, 12번지
- ▷ 대지면적 : 1260㎡ (382평) ▷ 총연면적 : 11,322㎡ (3,425평)
- ▷ 건물규모 : 지상 8층, 지하 5층 ▷ 건축기간 : 2008. 4월 ~ 2009. 9월

귀의 삼보 하emus고

지장선원 · 안양불교문화원 · 안양불교대학은 불타의 해명과 조계종 중지를 봉대하며 불타의 가르침에 대한 올바른 전범과 불자님들의 교육 및 사회 복지 사업을 위하여 신축불사를 봉행하고 있습니다.

극락정도 안양구에 세워질 도심속의 전범도량 신축불사에 무부 동참하시어 무량한 복덕 지으시고 세세생생 부처님 품안에서 구경 성불하시기 바랍니다.

원불봉안 및 불사에 동참하신 분들께는 돌아가신 후 영구우패를 봉안하여 사십구재와 기제사, 명절차례를 세세생생 묘사드리며 공덕비에 이름을 새겨 매일 친도 기도해 드립니다.

불자들의 정성어린 한통의 전화로 신축불사가 이루어집니다.

■ 안양불교문화원 ARS 신축불사후원금 060-707-1032 9999

원불봉안, 탕화, 수미단, 닻집, 법상, 법종, 향로, 촛대, 불상 등의 불사도 가능합니다. ■ 신축불사상담 1588-1936

■ 계좌번호 : 우리은행 1005-401-248474 안양불교문화원
국민은행 620601-01-131405 지장선원
농협 170888-51-025398 안양불교문화원

■ 홈페이지 : www.abccenter.or.kr ■ E-mail : abccenter123@hanmail.net

조실 지관 회주 세민 주지 현호 신도회장 심정구 수석고문 이필상